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Equity Research
2026.2.3

[인도]
정우창
wcchung@miraeasset.com

인도

관세 리스크 완화

- 미·인도는 상호 관세를 50% 수준에서 18%로 조정하며 관세 리스크 완화
-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더라도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인도 증시와 루피화에 센티먼트 개선 기대. 세부 조건은 추가 확인 필요하나, 징벌적 관세 철회와 관세 정상화에 따라 인도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 유지

미·인도 관세 협의: 리스크 정상화 국면 진입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월 2일 미국과 인도는 양국 간 무역 협의를 통해 대(對)인도 상호 관세를 기존 50% 수준에서 18%로 낮추는 데 합의하였다.

작년 7월 미국은 인도산 제품 전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석유 및 무기 수입을 이유로 추가적인 25% 수준의 징벌적 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고하며 양국 간 통상 관계는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관세 인하 자체보다는 관세 수준의 '정상화'에 있다. 상호 관세를 18%로 조정한 것은 과거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적용해 왔던 평균적인 관세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로, 새로운 무역 혜택을 부여하기보다는 과도하게 부과되었던 징벌적 성격의 관세를 일부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트럼프 대통령은 협의 과정에서 관세 조정 외에도 인도의 시장 접근성 확대, 에너지 및 방산 분야 협력,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관련해 미국 측은 인도의 에너지 조달 구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인도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 변경이나 공식적인 약속이 포함된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인도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데 있어 구조적인 제약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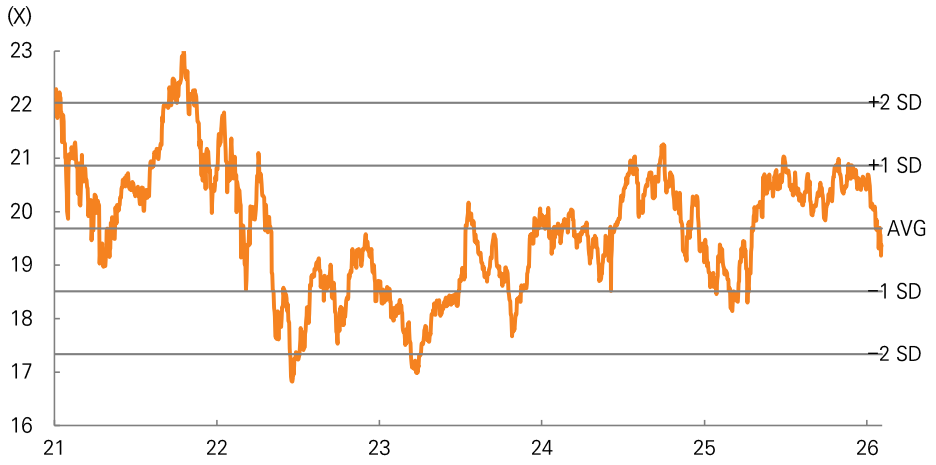
2025년 2분기 기준 인도의 전체 원유 수입 중 러시아산 비중은 33~36% 수준으로, 러시아는 단일 국가 기준 최대 원유 공급국이다. 2025년 7월 기준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브렌트유 및 두바이유 대비 배럴당 약 5달러 낮은 가격에 구매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22~2023년 배럴당 10~15달러에 달했던 할인폭과 비교하면 가격 메리트는 과거 대비 상당히 축소된 상태이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중단되어 이러한 할인 효과가 소멸될 경우, 인도의 연간 원유 수입 비용은 약 9억~11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유류세, 정제 및 유통 비용 등 간접 비용을 포함할 경우 총 부담은 17억~21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인도의 명목 GDP를 약 4조 달러로 가정할 경우 GDP 대비 0.04~0.05%에 불과해,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 비중 확대 유지

아직 이번 관세 협정의 세부 조건, 적용 범위, 품목별 영향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징벌적 관세가 부분적으로 철회되고 상호 관세가 다시 18% 수준으로 복귀함에 따라, 이번 합의는 인도 주식시장과 최근 약세를 보였던 인도 루피 환율에 대해 센티먼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인도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의견을 유지한다.

그림 1. Nifty 50 밴드 차트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